모골송연함 속의 마음교환

(시편 57:1~11)

1.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모골송연함 속의 마음교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모골송연함 속의 마음교환'

'모골송연(毛骨悚然)'이란 아주 끔직한 일을 당하거나 볼 때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몸속 뼈에 한기가 들어오고 온 몸의 털이 곤두선다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염두에 두고 제목이 뜻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마음교환은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근본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선민은 땅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현장으로 당신의 마음을 보내십니다. 마치 물물교환(物物交換)을 하듯이 선민의 삶의 특징은 심심교환(心心交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심교환을 할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마음을 떠나보내도 될 것이냐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그러한 두려움의 극한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마음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함을 알지만 과연 떠나도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붙잡고 염려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않아도 괜찮겠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모골이 송연해지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진다'라는 말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성경구절이 있다면 아마도 하박국일 것입니다.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즉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절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모골의 모(毛)는 몸에 나 있는 털이고, 골(骨)은 온 몸의 뼈입니다.
쳐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은 떨렸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와서 처소에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구체적으로 피해가 생겨납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고 했습니다. 즉 알거지가 된다는 상황이고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무화과나무의 무성함,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는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마음은 하나님께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이 땅의 상황이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전개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교환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어떨 때에 모골이 송연해질까요? 맞벌이를 하던 부부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있을 줄 알았던 안방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문을 열고나옵니다. 이럴 때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하며 심장이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과의 마음교환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교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생활을 하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피신해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억류되었던 시기에 쓰인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사울 왕에게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남유다 땅인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을 중심으로 하던 시기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도 표제어가 믹담 시로 되어 있습니다. 믹담 시는 곧 황금처럼 아름다운 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살펴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께로 피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더러 주께로 피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동굴과 광야를 유리하면서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하면서 보호해주실 것을 간구했다는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뜻의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으로 표현할 때에 연상하는 모습은 법궤의 덮개였던 속죄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계약 이후에 선민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십년 광야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막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직사각형의 덮개 모양을 한 속죄소의 양쪽 끝에는 마주보는 두 그룹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날개를 앞으로 쭉 뻗어 맞닿은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들이 연상하던 날개 아래에서 보호 받는 모습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출애굽기이후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 두 그룹 사이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서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법궤를 지성소에 모신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법궤가 있는 성전으로 마음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속 법궤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붙잡기 위해서는 마음이 성전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천사의 날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나의 마음도 그 날개 아래에 머물게 됨을 뜻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시절에 놉 땅에 제사장이 머물렀다는 것은 그곳에 성막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궤는 성막이 아닌 기랏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만 선민은 법궤와 성막이 가리키는 신앙적 원리를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사십년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천막을 치고 살았고 행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굴에 피하고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법궤가 있는 성막으로 마음을 보내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성막으로 보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몸은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법궤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는 마음을 그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번제단을 비롯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몸이 있던 굴에조차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환의 원리를 시행했던 다윗의 환경은 모골이 송연한 상황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라는 말은 굶주려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라고 하는 말은 증오로 불타오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교환의 신앙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는 말은 그들의 말이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 같이 코앞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모골이 송연한 상황에서조차 마음교환을 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5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마음교환을 하자 마음이 하나님께로 피신하여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몸이 있는 곳에 오셔서 그 인자(사랑)와 진리(뜻)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임을 기대한다는 후렴구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금방이라도 나를 잡아 불살라 죽일 것 같이 살기를 띄고 포위하는 모골이 송연한 상황에서도 마음교환의 원리를 실천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교환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마음의 여정이 6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겪은 심적 고통이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억울하다’라는 말은 ‘허리를 구부리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역해보자면 ‘내 마음이 기가 꺾였다, 내 마음이 풀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안심이 안 될 정도로 원수들의 핍박과 추격이 거세고 주도면밀하여 마음교환의 원리를 따르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선민이 마음교환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삶의 현장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울에 대해서도 당당해지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추격이 끈질기고 증오심이 격렬하다보니 하나님께 마음을 보낸다고 해서 목숨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항해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기등등해서 코앞에 까지 칼과 창끝을 들이밀고 있는 원수들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한 것입니다.

모골이 송연한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섭리하심에 대한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 위기상황에 등을 돌리고 죽은 자인 것처럼 마음이 떠나도 될 것인가에 대해 염려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붙이고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들의 살기등등함보다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가에 대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매순간 삼각관계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도 눈앞의 세상의 상황이 더욱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음교환을 하자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음의 풀이 죽고, 기가 죽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뜻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벌어질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풀 죽은 마음으로나마 결심을 했는데 6절 하반부를 보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희한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 법궤가 있는 성막으로 마음을 보냈습니다. 몸은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의 병력에 둘러싸여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고 속수무책으로 마음이 떠나버린 삶은 결코 적들의 수중에 빠지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기죽거나 풀죽지 않을 만큼 확신을 얻었습니

다. 사울에게 둘러싸였고 이보다 더한 위기에 처할지라도 마음교환을 함에 있어서 다시는 주저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으리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무조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과 기쁨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몸이 처한 상황은 망하더라도 나를 위한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는 말은 곧 내 마음은 무조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셔서 이 상황들에 대해 역사하시는 마음교환의 원리를 확정짓겠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위기이든 평안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보내기로 확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서는 절대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마음으로 등 돌릴 때에 염려되고 두려울지라도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떠나기로 결정한 결과가 8절에 나타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세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있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대적들을 신경 쓰는 동안에는 그것이 전부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보내드리자 다윗을 둘러싼 것이 사울의 창과 칼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이 온 천지에 가득함을 깨달았습니다. 땅을 봐도 하늘을 봐도 심지어 사울을 볼 때에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까지는 사울에게 쫓기던 두려움으로 인해 어둠속에 묻혀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가득 찬 세상이 오도록 새벽을 깨우겠다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교환의 원리가 주님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듯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마음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돈 문제, 건강문제, 취직문제, 승진문제 등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과 모골을 송연케 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도록 확정짓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무조건 주어지는 세상의 상황 앞에서 마음이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의 주체가 대신 서실 것이고 그 때에 새벽이 깨워질 것입니다. 그동안 어둠에 묻혀있던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이 은총과 긍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모골이 송연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에 확정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임을 확정짓게 해주심으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